# 병원에 활짝 핀 '힐링꽃'

## 이화의료원 설립 135주년 기념
## 광주최초 여의사 현덕신 선생
## 손자 최영훈 화백 초대전
## 7월 17일까지 이대서울병원
## 이대출판부 '평전'도 출간 예정

'Dream of May'

1887년 10월 한국 최초의 근대식 여성병원인 '보구녀관(普救女館)'이 설립된다. '널리 여성을 구하는 곳'을 뜻하는 이름은 고종 황제가 내렸다. 보구녀관은 볼드윈진료소, 동대문 부인병원을 거쳐 지금의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으로 역사가 이어진다.

지난 2019년 이대서울병원을 신축하며 '보구녀관'을 복원하고 자신들의 뿌리인 동대문 부인병원에 대해 연구하던 이화의료원은 1920년대 동대문병원 의사였던 '여성 의료계의 선구자' 현덕신(1896~1962) 선생에 주목한다.

이화학당 졸업 후 일본 동경여자의과대학에서 유학한 현덕신 선생은 광주 최초의 여의사로, 광주 최초 여성 전문병원인 현덕신의원을 개원, 의료 활동을 펼쳐왔다.

독립운동가인 남편 최원순의 건강 악화로 광주에 내려온 현덕신은 광주 최초 여성 전문병원인 현덕신의원을 열었다.

이화의료원이 설립 135주년을 맞아 현 선생의 손자인 최영훈 화백 초대전을 개최한다. 오는 7월17일까지 이대서울병원 아트큐브와 웰니스아트존에서 열리는 이번 초대전은 의료원이 지난 1년전부터 기획하고 준비한 전시다. 지난 23일 열린 전시 개막식에는 최 교수 부부와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유경하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 화백은 이번 전시에 최근 몇년 사이 맘 먹고 작업하고 있는 1000호 대작을 비롯해 모두 40여점의 작품을 걸었다.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화려한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작품들은 '병원'이라는 공간에 잘 어울려 힐링을 선사한다.이번에 첫 선을 보이는 1000호 대작 '봄빛'은 각양각색의 꽃들을 한꺼번에 쏟아부은 듯한 화려함이 돋보이고 화면 전면에 등장하는 커다란 꽃들과 뒤로 감춰진 작은 꽃무더기, 다채로운 색감이 어우러져 화려한 향연이 펼쳐진다.

최 화백의 그림엔 장미, 라일락, 백일홍, 복숭아나무, 홍매화 등 온갖 꽃과 나무가 감각적인 색감으로 가득 담겨 있고 다양한 변주를 통해 약동하는 기운을 전한다.

작가는 꽃과 나무에 구체성을 부여하기보다는 대상의 윤곽을 흐리고 경계를 모호하게 처리, 자연스러운 스며듦과 번짐의 효과를 부여했다. 또 캔버스에 유화로 작업한 작품은 화면 전체를 두텁게 바르는 대신 엷게 붓질한 바탕에 포인트 되는 부분에만 두껍게 물감을 발라 대상을 강조했다.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근무하던 현 선생은 독립운동가이자 동아일보 기자였던 남편 최원순 선생이 일경의 고문으로 건강을 잃어 낙향하자 광주로 함께 내려와 지역 첫 여성병원을 개업하고 지역사회 운동과 여성교육에 헌신했다. 도쿄 히비야 만세운동에 참여하는 등 독립운동에도 앞장섰던 그는 사회운동, 여성계몽 운동에 참여한 공로로 2020년 건국포장을 받았다.

최 화백은 "고등학교 시절까지 할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항상 꼿꼿하고 당당한 할머니의 모습을 기억한다"며 "의미있는 공간에서 할머니를 추억하고, 기리는 의미있는 전시회를 열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립미술관장을 지내고 조선대 미대에서 퇴직 한 최 화백은 "12년 째 대촌 작업실에서 30여년동안 가꿔온 꽃과 나무들 사이에서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작업해온 시간들은 즐겁고 만족스럽다"며 "자연과 음악과 좋은 이웃들이 있어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화여대 출판부는 조선대 이동순 교수가 집필중인 현덕신 선생 관련 책자를 오는 11월께 출간할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ACC재단, 창제작유통사업 선정
## 세종·진주·밀양 등 4곳서 공연

80년 5월을 다룬 대표작 '시간을 칠하는 사람'이 야외공연으로 재탄생해 세종시를 비롯해 4개 지역으로 유통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에 따르면 '시간을 칠하는 사람'이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22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유통 협력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시간을 칠하는 사람'이 야외공연으로 새롭게 재작돼 4개 지역에 유통된다.

첫 번째 무대는 오는 6월 5~6일 세종예술의전당 야외광장. 이후 밀양아리나 성벽극장(6월 17~18일), 진주 남가람문화거리 야외공연장(8월 5~6일)을 거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광장(9월 9~12일) 등에서 관객을 만난다.

'시간을 칠하는 사람'(연출 윤시중, 극단 하땅세)은 80년 5월 최후 항전지였던 옛도청과 그 건물에 얽힌 칠장이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ACC 예술극장에 '움직이는 객석'을 설치해 ,관객이 이야기를 따라 여행하듯 관람하는 경험을 선사해 화제를 모았다.

전국 유통을 위해 야외공연으로 재제작한 이번 작품은 기존 장점은 살리되 안정상 문제로 사용하지 못한 횃불, 연막탄 등을 활용해 극적인 연출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기존 작품을 광주만의 이야기에 제한하지 않고 확대해 모든 지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민중의 이야기로 초점을 맞췄다.

특히 세종예술의전당 야외광장에서 펼쳐지는 첫 무대는 '움직이는 객석(100석)'과 함께 무대 뒷모습도 엿볼 수 있는 '나들이석(400석)'으로 구성했다. 4개 지역 공연은 전 좌석 무료이며, 8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한편 '시간을 칠하는 사람'은 지난 2018 ACC 창작스토리 콘텐츠개발 프로젝트 '광주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스토리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작품 '시간을 짓는 건축가(송재영 작)'를 모티브로 제작했다. 지난 2019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 시범공연을 선보인 후 ACC 대표작품으로 자리매김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동네방네 미술관:관방천 따라디리 징검다리'

## 28일 대담미술관

담양 대담미술관(관장 정희남)이 오는 28일 문화가 있는 날 '동네방네 미술관:관방천 따라디리 징검다리' 행사를 개최한다.

미술관은 담양 향교리 지역의 특산물과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오는 8월까지 모두 5차례 지역민과 관람객 등을 대상으로 무료 진행한다.

28일 행사는 전시와 공연이 어우러진다. 향교리 아티스트 팝업전시'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야외전시 공간에서 열린다. 대담미술관의 지역문화활성화 프로젝트 '동네방네 미술관' 체험에 참여한 지역 향교리 주민 아티스트 7명이 직접 제작한 아트타일을 전시하는 기획이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상설 도슨트를 운영, 작품 해설도 진행한다.

'오목대 명인 대금 공연'은 오후 3~4시 미술관 야외무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서는 오목대 명인이 준비한 다채로운 곡 뿐 아니라 즉석에서 신청곡을 받아 연주, 관람객과 소통하는 형식으로 꾸며진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우리가 만든 그리고 사라지는

백은하 작 '마지막 삶'

윤기원 작 '수달'

## 광주신세계갤러리, 6월20일까지 '환경의 날' 기획전

기후변화, 환경문제 등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아진 요즘이다. 철저히 인간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생태계에 함께 살고 있는 다른 생명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 그들의 잊혀지고, 사라져가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합당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줘야하지 않을까.

광주신세계백화점 1층에 자리한 광주신세계갤러리가 환경의 날(6월5일)을 맞아 환경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기획전을 오는 6월20일까지 개최한다.

'우리가 만든, 그리고 사라지는'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인간 기준으로 만들어진 생태계에 공존하는 다른 생명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인간들에 의해 훼손되어가는 자연과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만나는 의미있는 기획이다.

전시에 참여한 6명의 작가는 회화, 사진, 일러스트, 설치작품 등 다양한 장르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작가 저마다 표현방식은 다르지만 참여작가들은 인간의 기준에서 바라보는 자연이 아닌, 자연 속 모든 존재를 그 자체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다채로운 작품을 통해 전달한다.

장용선 작가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강아지풀을 소재로 삼았다.

작가는 마치 박물관의 보물처럼, 전시장의 그림처럼 강아지풀을 조명 아래 전시한 후 의자에 앉아 감상하도록했다.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자연을 선택, 배제, 훼손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정현목 작가는 대량 생산돼 소비되고 쉽게 버려지는 꽃과 일회용품을 조형적 연출로 찍은 사진 작품 '고개를 숙여 마주하다', '캔에서 시들다' 등의 작품을 통해 인간의 필요에 의해 상품화되고, 버려지는 현대 사회의 시스템을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김혜정 작가는 사람들에 의해 여러가지 이유로 버려지는 반려동물부터 학대받는 야생돌물까지 다양한 동물의 이야기를 소박한 연필 일러스트 작품으로 풀어낸다. 작품 '먹는 거야'는 바닷가 해변으로 밀려온 쓰레기를 입으로 끌어올리는 북극곰의 모습을 담고 있다.

유지연 작가의 작품 속에는 인간과 가장 가까운 반려동물은 '개'가 등장하는데 그림 속에선 사람들과 유사하고 익숙한 표정과 눈빛을 만날 수 있다.

천과 실, 아크릴 물감으로 작업한 백은하 작가의 '마지막 삶'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야생동물의 막막함과 공허함을 표현하고 있으며 얼핏 평화로운 느낌의 '마지막 장생도'를 통해 지구상에 함께 살아가는 동물과 자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호소한다.

윤기원 작가는 '수달', '호랑이' 등 멸종위기 동물들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기록하고, 작가 자신 역시 멸종위기 동물의 목록에 포함시켜 우리가 공존·공생하는 존재임을 알린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가수 하림의 낮고 따뜻한 음표'

## 28일 담양 해동문화예술촌

담양군문화재단 해동문화예술촌은 2022년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으로 '앙코르 해동'을 선보이고 있다.

'앙코르 해동'에서는 팝, 클래식, 재즈, 뮤지컬, 연극, 국악 등 지역의 특색을 접목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만날 수 있다.

지난 4월 가수 윤선애 공연에 이어 오는 28일 오후 5시 가수 하림<사진>을 초청, '하림의 낮고 따뜻한 음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를 진행한다.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등 300여곡의 가요를 작곡하고 부른 하림은 이주자 노동자 예술치유 프로젝트 '국경 없는 음악회', 예술가들의 인권운동네트워크 '시크릿액션' 등 예술가들의 사회 공헌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2018년 '기타포아프리카' 프로젝트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으며 최근에는 '그 쇳물 쓰지 마라 함께 부르기' 프로젝트를 기획,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운동에 힘쓰고 있다.

이야기 손님으로는 임의진 시인이 함께한다.

다음 프로그램은 오는 6월 25일 열리는 '남도풍 코미디극-딸기가 사라졌다!'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